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30~2015.4.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헤인	수오서재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 불평등	불광출판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인생을즐거워야하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3	설전(법정이문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9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5	능엄경 대의불이	법화인/송찬원	마하연	10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번뇌가 곧 보리니 약 삼아 주인공 되라”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 대사 지음 | 정원유 옮김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허운(虛雲) 대사(1840~1959)가 태어난 1840년은 아편전쟁이 발발한 해로 근대 중국이 시작된 때이다. 허운 대사는 부패가 만연한 청나라 말엽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청일전쟁, 신해혁명과 청의 멸망, 공산당 창당과 국공합작, 항일전쟁,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등 중국 근현대의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한 일생을 보냈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삶을 산 허운 대사는 미신으로 치부되며 무너져 가던 불교 전통을 다시 확립하고 선종 5가의 법맥을 이으며, 전쟁으로 신음한 동시대 중국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는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수행해 생사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대사에겐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맞닥뜨려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험장이었다.

허운 대사가 남긴 법문에는 참선수행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꼭 배우고 익혀야 할 근본 도리에 관한 가르침도 많다. 허운 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因果)의 도리를 받아들여야 하며, 불법(佛法)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계율의 엄격한 준수가 그 기본이며, 한 가지 수행법을 선택하였으면 세세생생 물러나지 말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의 도리와 바른 믿음, 계율 준수, 불퇴전의 정신을 갖추어 어떤 수행을 하든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참선 수행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허운대사, 중국의 선종5가 법맥 이어 전쟁 등으로 신음하는 중국인들 아픔 위로 전국 각 사찰마다 불교대학 설립해 교육 법맥 끊긴 위양·법안·운문종 되살려

대사가 남긴 참선 법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며 간결하다. 참선의 목적과 선결조건, 초심자와 구참자의 수행상의 어려움과 타과 방법, 의정을 일으켜 화두를 드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대사가 주로 든 화두는 ‘염불하는 것이 누구인가?’로 ‘누구인가?’에 그 방점이 있다. 또한 대사는 화두를 ‘한 생각 일어나기 전’으로 규정하며 한 생각이 일어난 이후인 ‘화미(話尾)’와 구별하고, 화두 참구를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화두를 보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관하는 것’이 같음을 설명했다. 이 책은 10여 년 동안 중국 스님들의 법문과 경전 해설을 소개한 각산 정원규 거사가 허운 대사의 감명 깊은 법문과 참선수행에 대한 가르침, 대사의 생애 이야기를 엄선해 번역한 책이다. 120년의 세월을 겪어내며 대사가 체득한 불법의 요체뿐만 아니라 참선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실었으며, 마지막 장에 대사 생애를 소개하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과 중생구제를 위한 참된 보살도를 기렸다. 재난과 역경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고 보살도를 실천해온 허운 대사의 법문과 생애를 통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불자들이 고난을 견디며 정진을 이어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강경은 삶의 병폐 해결하는 최상의 도구”

금강경 강의

본원 스님 지음 | 부다가야 펴냄 | 2만2천원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 독경 했을 수행 지침서이자 수행의 길잡이가 돼주는 <금강경> 해설서가 나왔다. 경주 성불사 주지 본원 스님(사진)의 <금강경 강의>이다. 본원 스님은 “<금강경>은 인간을 고통 속으로 끌어매는 온갖 속박서 벗어나게 한다. 수행을 통해 삼계를 무대 삼아 주인공으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금강경 대의를 ‘항(降)’ ‘주(住)’ ‘수(修)’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스님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항은 관조의 지혜로 번뇌 망상을 항복 받았음을 의미한다. 일체의 상을 여인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한 체성 에다가 그 마음을 머무르는 것이 주이며 보살 만행의 실천으로 선행을 쌓으면서 끝없는 고통의 생사윤회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수”라



만야지혜 통한 영원한 행복의 길 제시 대중 위한 풍부한 예화와 알기 쉬운 설명

고 해석했다. 책을 펴내기 까지 본원 스님은 20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또한 독송 중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화두 삼아 사유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법회에서도 금강경을 강조하고 불자들에게 함께 독송 할 것을 권했다. 그래서 성불사 불자들은 금강경 1천 독은 기본이 되어있다. 1만 독을 한 노 보살이 있을 정도로 성불사는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는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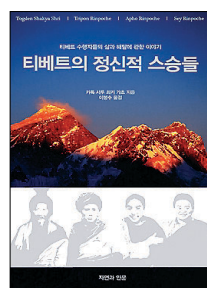
본원 스님은 “경주는 사골이라 처음 법회에 5명이 올 정도로 열악했다. 하지만 정법 도량으로 경전을 강조한다. 그 결과 지금은 50여명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멀리 경주까지 찾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 법회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SNS를 통해 전달했다. 강의를 받은 전국 불자들은 “한 번 보고 말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며 큰 호응으로 스님께 답했고 “책으로 남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경>과 더 좋은 인연을 맺어 주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그렇게 출간된 <금강경 강의>는 총 32쪽 원문과 번역 그리고 일반 불자들을 위한 경전 해설로 구성됐다. 내용은 모두 알기 쉬운 현대 언어와 예화를 사용한다. 또한 <금강경> 독송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실천 수행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저자인 본원 스님은 1987년 능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해인사 강원서 수학하고 동국대 불교학부에 편입 졸업했다. 그 후 고운사, 불국사, 도성암 선원 등서 안거했으며, 현재는 경주 성불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티베트 밀교수행 성취자들의 정신수행 이야기

티베트의 정신적 스승들

저자 카툰 시투 최기 가츠 | 역자 이봉수 자연과 인문 펴냄 | 1만 5천원



<티베트의 정신적 스승들>은 티베트 밀교 수행 성취자들의 삶과 대자유를 위한 정신수행 이야기이다. 샤카 쉬리(1853~1919)는 우리에게 약간 낯선 이름이지만 하지만 근자에 가장 뛰어난 밀교 수행 성취자였다. 그는 빠드마 삼버바(717~762)의 25제자 중 한 명인 나남 뒤종의 환생자다. 생전에 걸인과 같은 모습으로 은둔 수행처에서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이적을 행한 그는 무지개뿔을 성취하고 열반한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는 대원만수행인 죽천과 대수인수행 마하무드

라에 통달하였고, 나로빠가 전해준 수행법인 나로유포법에도 정통한 수행자였다. 왕대발에 왕대가 나뉘는 그의 제자와 후손 중에는 밀교 수행 성취자들이 많다. 이 책은 샤카 쉬리와 그의 법맥 계승자들인 린포체 3인의 삶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다. 티폰 빠마 초겔, 아포 린포체, 세이 린포체가 이들이다. 독빠 가규 법맥인 이들은 밀라레빠의 전통을 이어받아 은둔 수행처에서 오랜 기간 수행을 했다. 이들 중에서 현존하는 사람은 세이 린포체로 복인도 마나리서 수행진전과 전법활동을 한다. 그는 실수행을 가장 많이 했으며 배꼽불 수행인 푼모를 실행하는 수행자라고 달라이라마도 말했다. 이 책은 철저한 사실에 바탕을 둔 수행자들

의 일대기 형식이지만, 중간 중간에 각종 밀교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밀교 요가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이 책이 보여준다는 점이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 비밀한 법을 전수받으면 이번 생에서 바로 대자유를 얻는 길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티베트 불교는 밀교라고 하는 금강승불교로 대표된다. 스승과 대승을 거쳐 발전된 금강승은 독특한 수행체계를 갖고 있다. 스승이 제자에게 내밀하게 전수하는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은둔 수행처에서 엄격한 수행을 하는 것도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다. 이 책은 티베트의 혹독한 땅에서 정신적 삶의 진수를 보여준 샤카 쉬리와 티폰 린포체, 아포 린포체, 그리고 세이 린포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김주일 기자

www.buddhagaya.co.kr

부처님의 메시지로 풀어 본 금강경 강의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풍부한 예화와 구어체로 풀어놓은 명쾌한 강의!
 『금강경』 독송을 수행방편으로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 실천 수행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왜 금강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본원 스님 지음 | 양정민 | 308쪽 | 값 22,000원

SNS 화제의 신간

본원 스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전한 부처님의 바로 그 메시지

金剛經

*부다가야는 삼세의 대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기도.
 *도사출판 부다가야는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불서를 펴냅니다.

부다가야 대표전화 | 051)865-4383 편집디자인 | **다인기력** 051)866-7818